



과일계의 다이아몬드 '체리' 수확 한창 1일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험 재배지에서 직원들이 연구 중인 체리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갓 수확한 체리를 신선하게 유통하려면 선종기로 30도 정도 밀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농업과학기술 발명으로 국민들의 삶 향상 기여

동물복지 인증제도  
양잠산물 이용 기술 등  
농진청, 발명의 날 기념  
유공 포상 8건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자로 농촌진흥청 연구원 7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인의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 발명기의 사기를 높여 우수 발명 창출 또는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발명의 날을 기념해 발명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발명진흥회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올해 발명의 날 포상에서 농촌진흥청은 근정포장 1점 대통령 표창 2점,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 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점, 특허청장 표창 2점 등 총 8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현장 실용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발명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농촌진흥청 수상자 및 단체는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연구사(근정포장) ▲분청 조유영 연구사(대통령 표창) ▲농업기술실용화재단(단체, 대통령 표창) ▲국립식량과학원 최혜선 연구사(국가지식재산위원 회위원장 표



농촌진흥청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자로 농촌진흥청 연구원 7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창) ▲국립농업과학원 박신영 연구사 및 국립축산과학원 임다정 연구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국립축산과학원 조인철 연구관 및 함준상 연구관(특허청장 표창) 등이다.

전중환 연구사는 '동물복지 인증제도' 등 국가정책 활성화를 뒷받침했고,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조유영 연구사는 양잠산물을 이용한 기술 개발과 의류용 소재 개발 등 응용도 다양화로 국가 경제발전, 양잠산업 기반강화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최혜선 연구사는 순식물성 쌀 발효 신소재 개발, 식량작물 및 유용균주 활용 신규 장류 개발 등 융·복합 기능성 강화와 원천기술 실용화로 농식품 산업 발전을 선도했다.

박신영 연구사는 발효미생물과 약산 자원의 융·복합기술 개발로 농식품 산업 성장에 기여했으며, 임다정 연구관은 한우 맞춤형 유전자 칩 개발 및

상용화로 한우 개량을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조인철 연구관은 가짜 흑메지진 단방법 개발 원천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난축맛' 개발로 관련 산업발전 공헌을 함준상 연구관은 기능성 기전 구멍을 통해 토종 유산균의 산업적 활용기술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들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R&D에 기여한 연구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기술이전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증진,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및 실시료 납부방식 등 제도개선, 발명진흥 활동으로 기술농업 전환 지원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 조남준 연구정책국장은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실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농업현장 또는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농촌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농식품부, 8월 31일까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귀농·장년 여성농

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4 용지 기준 3매 이상 6매 이하(다문화 여성농업인은 2매 이상) 분량의 수기를 작성해 이름과 연락처 및 관련 사진과 함께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sugi@agnit.co.kr)으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한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등 전문심사단이 체험의 현장성과 여성농

/김윤상기자

## 4대 사회보험 증빙서류 연계 국민불편 해소

국민연금,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달 28일 2020년 정부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혁신 유공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혁신을 선도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공단은 ▲4대보험 민원신고 증빙서류 연계 ▲코로나19 방역 기반 데이터 제공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통령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4대보험 민원신고 증빙서류 연계'

는 4대 사회보험 자격 변동 신고 시 한 기관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사회보험 기관이 이를 공유하는 서비스다. 그간 4대보험 신고 시 필수 제출 자료인 증빙서류는 처리 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기관별로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사회보험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한 곳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되는 '4대보험 증빙서류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8만 건의 증빙서류를 연계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 4월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과 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등을 조합해 자가취리 앱에 활용되는 방역 기반 데이터를 보완해 제공함으로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등 국정과제에도 적극 지원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정보 연계활용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부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100년을 함께할 기업고객 찾아오'

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맞아 이벤트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년을 함께할 기업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3가지 부문으로 NH농협은행 신규거래기업을 위한 '시작하는 기업고객 이벤트', 창립 60주년 이상인 기업고객을 위한 '더불어 가는 기업고객 이벤트', 우수기업고객을 위한 '100년을 함께할 기업고객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시작하는 기업고객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신규 여신 또는 수신(정기예금) 5억원 이상 가입고객에 대해 자동 응모 및 추첨을 통해 총 60개소에 농협홍산신문세트를 제공한다.

더불어 가는 기업고객 이벤트는 창립 60주년이 넘는 기업고객 중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년을 함께할 기업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3가지 부문으로 NH농협은행 신규거래기업을 위한 '시작하는 기업고객 이벤트', 창립 60주년 이상인 기업고객을 위한 '더불어 가는 기업고객 이벤트', 우수기업고객을 위한 '100년을 함께할 기업고객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시작하는 기업고객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신규 여신 또는 수신(정기예금) 5억원 이상 가입고객에 대해 자동 응모 및 추첨을 통해 총 60개소에 농협홍산신문세트를 제공한다.

더불어 가는 기업고객 이벤트는 창립 60주년이 넘는 기업고객 중

NH농협은행 우수거래기업 총 60개소를 선정해 나날철기 자게 명함을 포함, 100년을 함께할 기업고객 이벤트는 NH농협은행 지역별 우수기업고객 총 60개소에 대해 금(1돈) 감사패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기업인터넷뱅킹 (<http://ibz.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 '사랑의 봄김치 나눔'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사한국)은 1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랑의 봄김치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지원과 감염병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전주시지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1000만원 상당의 봄김치는 지난겨울 지원 받은 김치가 부족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주시 관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4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식품·바이오 관련분야 졸업자·석사 12명을 대상으로 바이오인력양성사업 현장실습교육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 바이오인력양성사업 1기 발대식

식품·바이오 관련 취업연계형 현장실습교육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달 31일 식품·바이오 관련분야 졸업자·석사 12명을 대상으로 바이오인력양성사업 현장실습교육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매년 2기수를 운영하며 올해는 24명 교육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식품·바이오 관련학과 학사·석사 졸업생 및 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역량을 배양,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강기능식품 GMP 개론 및 생산 현장실습, 품질분석 실무 등을 통한 품질관리자 교육과 식품기

업의 연구인력 취업을 위한 R&D사업 계획 수립에 이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현장실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현장직 특강 및 우수기업 및 기업의 현장실습 과정, 특히, 예비취업자의 면접스킬을 키우기 위한 취업역량강화 캠프도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의 교육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생에게 매월 50만 원의 교육수당이 주어지며, 교육생 모집 1기는 4월, 2기는 7월 중 사립인([www.saramin.co.kr](http://www.saramin.c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윤상기자

## 신협, 어부바 캐릭터 3차 광고 '지니 편' 공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1일 3차 캐릭터 광고(지니 편) '어부바' 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꾼'을 공개했다.

지난 1차, 2차 광고를 통해 '주꾼', '사랑스럽다'는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명실상부한 신협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어부바 캐릭터들이 이번 3차 광고에선 지니로 돌아와 또 한 편

의 동화 같은 스토리를 펼친다.

이번 광고에서 어부바 지니가 등장하는 마법의 램프는 다른 이의 신협의 모바일 플랫폼인 '온뱅크'이다. 이번 광고는 신협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공개되며 메이킹필름을 통해 생생한 제작과정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협은 오는 30일까지 광고 런칭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 현대차그룹 '아이케어카' 전달

현대차그룹이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동행을 7년째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1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소재)에서 이병호 현대차그룹 상무, 윤해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 아이케어카(CAREcar)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지난 7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응현장의 아동성향상과 안전 확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 지역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상용)는 산림병해충의 효율적인 예방과 방제를 위하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산림병해충 예방·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본부 운영기간 내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 연막방제와 함께 농림지 동시발생(물방아·오래·일반병해충 등) 공동방제까지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와 함께 공동방제의 날 운영계획에 따라 협업방제를 추진하게 된다.

최근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에 따라 산림연접지 및 농경지 등에 그늘을 빼고 흡수파해를 동시에 겪고 있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진녀벌레 등 외래해충의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